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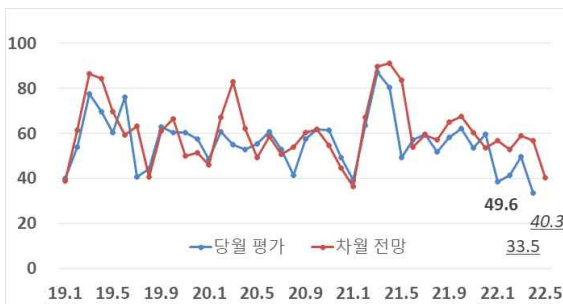
I. 2022년 4월 건설경기평가 및 5월 전망

■ 4월의 경기평가는 변함없이 전년 동월보다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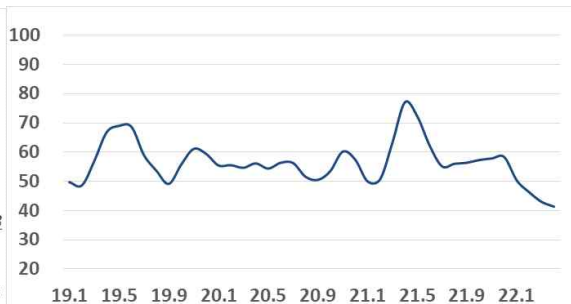
- 4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3.5로 전월(49.6)보다 하락하면서(-16.1p) 전년 동월과 큰 차이를 보였음. 차월인 5월의 전망치(40.3)도 예년과의 차이가 클 것으로 조사됨. 조사 응답업체들의 애로사항은 공사계약 이후 급등한 자재가격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당분간은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그 밖에는 업역개편에 따른 공사수주 감소, 공사자재와 인력수급의 어려움, 건설노조 등이 현안문제로 지적됨.
- 수도권은 35.5(38.2→35.5)으로 소폭 하락(-2.7p), 지방은 32.7(53.3→32.7)으로 개선됨(-20.6p).

〈표-1〉 2022년 4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5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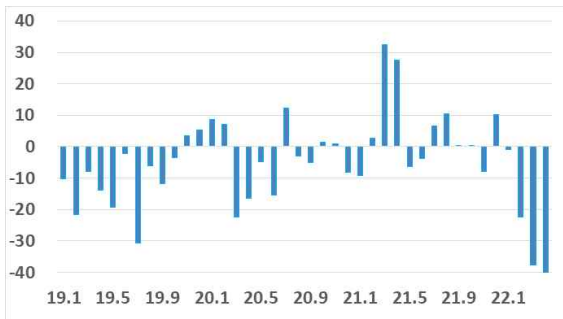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2년 4월 평가	33.5	80.6	35.5	32.7	26.5	34.4
2022년 5월 전망	40.3	83.6	35.5	42.1	23.5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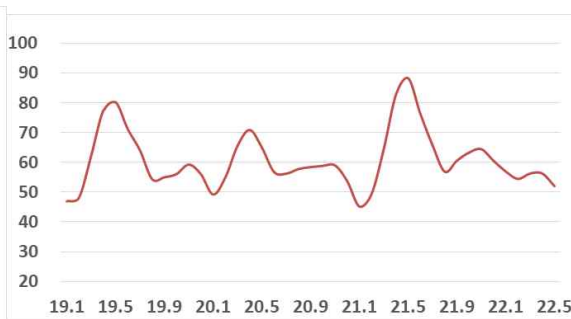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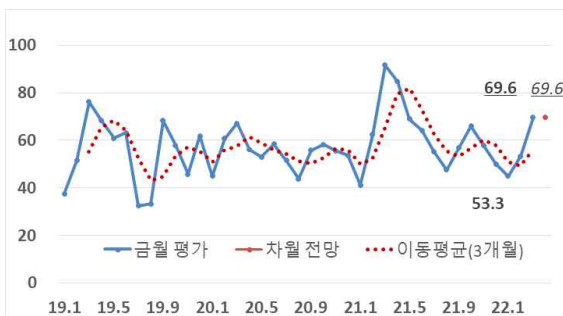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년 동월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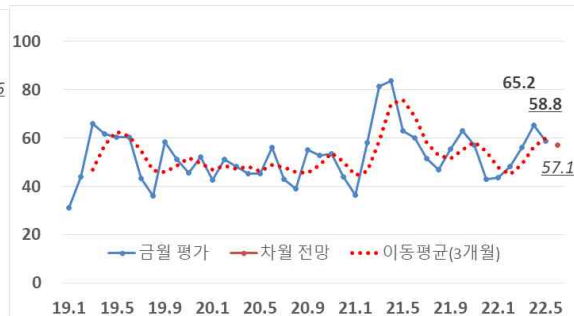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69.2(69.6→69.2)로 집계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0.7p), 하도급수주도 58.8(56.1→58.8)로 전월과 비슷하게 나타남(+2.7p).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3.2→64.5)이 전월과 유사한 반면(+1.3p), 지방(71.7→65.5)에서는 소폭의 하락이 집계됨(-6.2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67.6→64.5)은 전월과 약간의 차이만 보였으며(-3.1p), 지방(52.4→56.7)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4.3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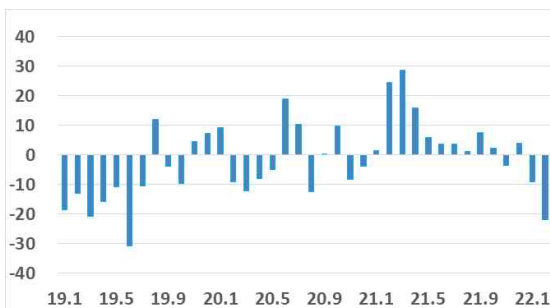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2년 4월 평가	65.2	84.8	64.5	65.5	58.8	67.7
	2022년 5월 전망	63.9	80.6	71.0	61.4	67.6	67.7
하도급 수주	2022년 4월 평가	58.8	83.6	64.5	56.7	55.9	70.8
	2022년 5월 전망	57.1	80.0	67.7	53.2	70.6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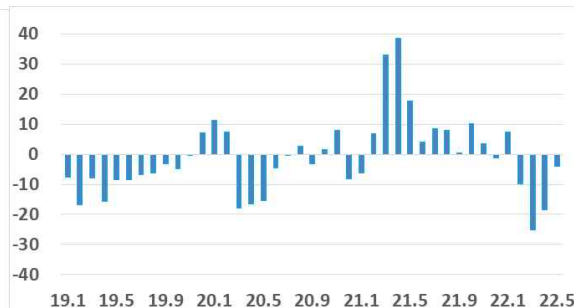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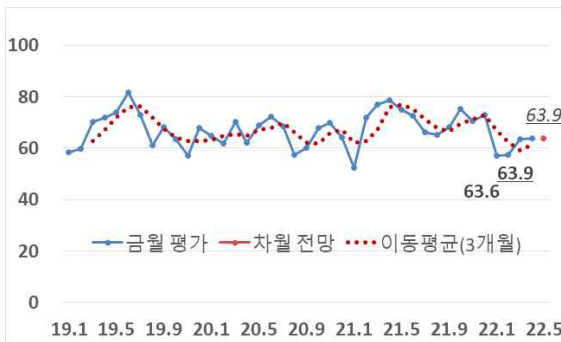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년 동월과 여전히 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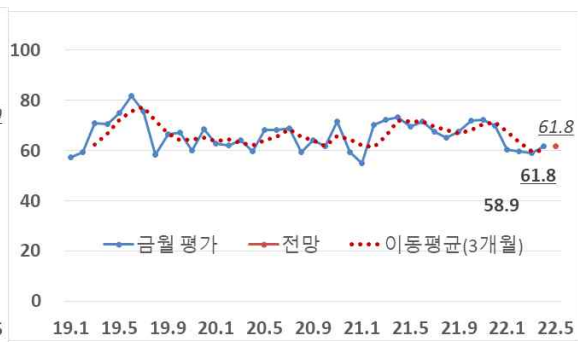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3.9(63.6→63.9)으로 전월과 사실상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0.3p), 여전히 전년 동월(78.8)과는 낮은 수준이 계속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57.4→43.5)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13.9p), 지방(65.6→71.3)에서는 전월에 이어 소폭의 개선세가 지속됨(+5.7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61.8(58.9→61.8)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2.9p), 역시 전년 동월(73.3)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이어짐.
 - 지역별로는 수도권(52.9→51.6)은 전월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1.3p), 지방(60.8→65.5)에서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4.7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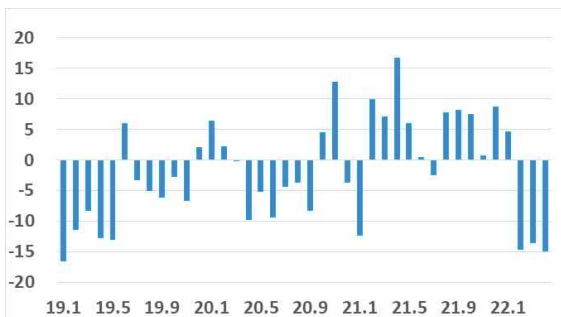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2년 4월 평가	63.9	78.8	43.5	71.3	35.3	65.6
	2022년 5월 전망	63.9	77.6	43.5	71.3	35.3	69.8
자금조달	2022년 4월 평가	61.8	73.3	51.6	65.5	41.2	62.5
	2022년 5월 전망	61.8	77.0	45.2	67.8	38.2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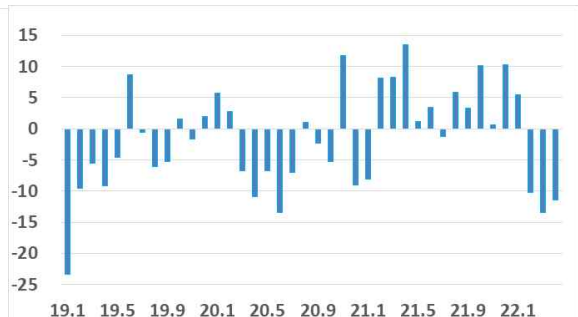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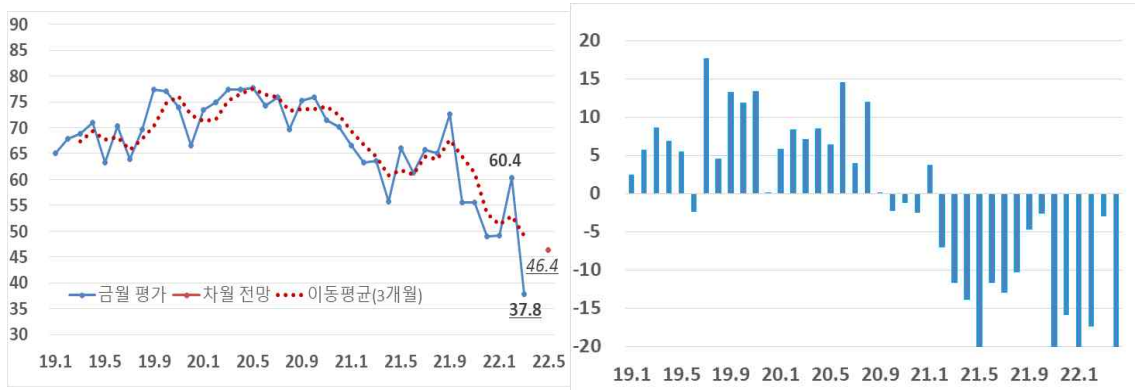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금년 들어 지속 하락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37.8(43.9→37.8)로 전월보다 하락하면서(-6.1p) 꾸준히 악화되고 있으며 전년 동월(63.6)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35.3→37.1)은 전월의 악화수준을 유지했으나(+1.8p), 지방(46.7→38.0)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사됨(-8.7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55.4(60.4→55.4)로 전월보다 소폭 악화되었는데(-5p),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전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 수도권(52.9→56.5)에서는 전월까지의 하락세가 소폭 반전되었으며(+3.6p), 지방(62.7→55.0)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됨(-7.7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2년 4월 평가	37.8	63.6	37.1	38.0	32.4	43.8
	2022년 5월 전망	46.4	72.7	45.2	46.8	41.2	50.0
인력수급	2022년 4월 평가	55.4	81.8	56.5	55.0	58.8	60.4
	2022년 5월 전망	57.9	82.4	54.8	59.1	58.8	63.5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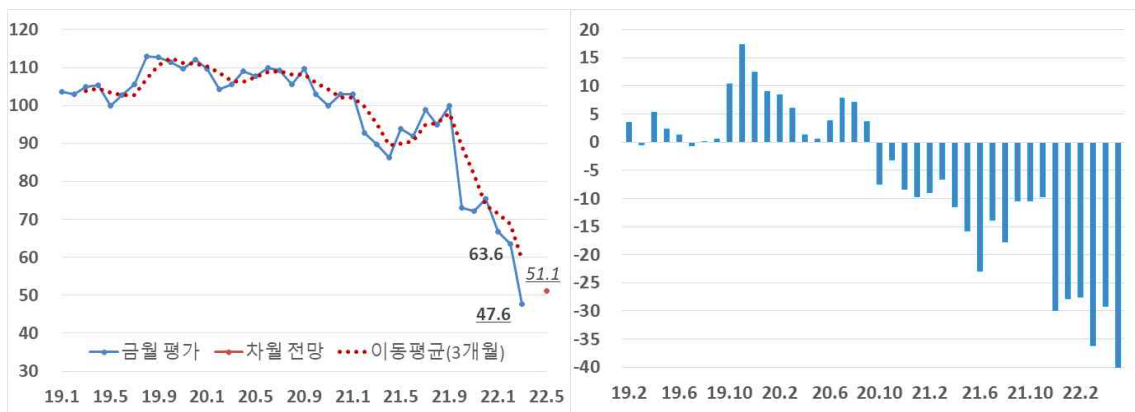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단기적인 해법이 막연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15.0(21.4→15.0)로 또다시 바닥을 모를 정도로 악화됨(-6.4p).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차월(21.0)의 전망치가 현실화되더라도 여전히 예년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수준임. 자재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자재비 체감지수는 지금의 유례없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17.6→12.9)에서는 변함없이 하락세가 이어졌으며(-4.7p), 지방(22.6→15.8)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남(-6.8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47.6(63.6→47.6)으로 전월에 이어 다시 떨어졌으며(-16p), 자재비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작년에도 철근을 중심으로 자재수급에 대한 문제가 연중 내내 불거졌었지만 금년의 상황은 그보다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64.7→50.0)에서는 전월에 이은 하락세가 이어졌으며(-14.7p), 지방(63.2→46.8)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음(-16.4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2년 4월 평가	15.0	58.2	12.9	15.8	8.8	17.7
	2022년 5월 전망	21.0	60.0	17.7	22.2	14.7	22.9
자재수급	2022년 4월 평가	47.6	89.7	50.0	46.8	35.3	55.2
	2022년 5월 전망	51.1	89.7	50.0	51.5	44.1	56.3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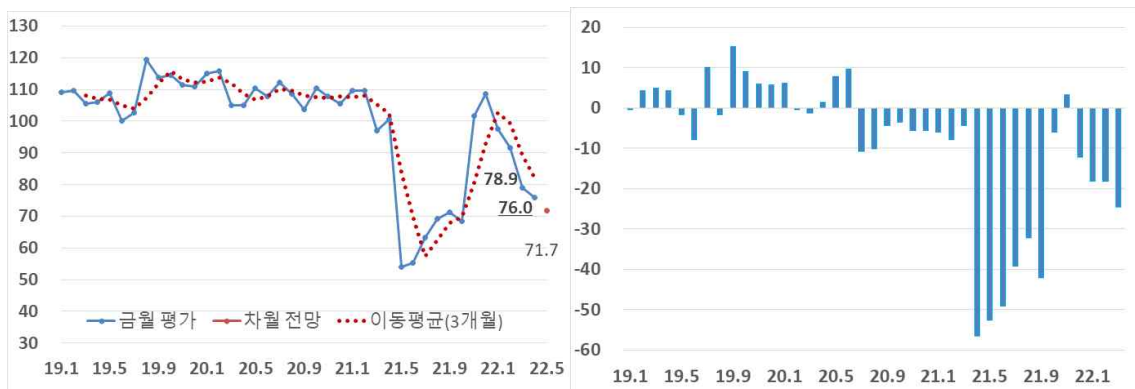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연이은 하락, 장비수급지수도 동일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38.2(42.9→38.2)으로 전월에 이어 하락했지만(-4.7p), 차월(44.6)에는 소폭의 반등이 전망됨(+6.4p). 건설자재난과 더불어 건설장비의 임대료 문제도 즉각적인 유가하락 등의 상황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로서는 정부주도의 건설투자의 감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45.6→45.2)은 전월의 수준을 나타냈지만(-0.4p), 지방(42.0→35.7)에서는 소폭의 하락세가 집계됨(-6.3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6.0(78.9→76.0)로 전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2.9p), 지금은 건설장비의 수급지수가 100아하로 크게 밀도는 전례없던 시기가 계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79.4→80.6)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했으며(+1.2p), 지방(78.8→74.3)은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감(-4.5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2년 4월 평가	38.2	69.5	45.2	35.7	44.1	43.8
	2022년 5월 전망	44.6	64.1	43.5	45.0	41.2	50.0
장비수급	2022년 4월 평가	76.0	100.6	80.6	74.3	70.6	86.5
	2022년 5월 전망	71.7	99.4	75.8	70.2	73.5	80.2



〈건설장비수급〉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2년 4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3.5	80.6	35.5	32.7	26.5	34.4	
	차월 전망	40.3	83.6	35.5	42.1	23.5	47.9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65.2	84.8	64.5	65.5	58.8	67.7
		차월 전망	63.9	80.6	71.0	61.4	67.6	67.7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58.8	83.6	64.5	56.7	55.9	70.8
		차월 전망	57.1	80.0	67.7	53.2	70.6	62.5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급	금월 평가	63.9	78.8	43.5	71.3	35.3	65.6
		차월 전망	63.9	77.6	43.5	71.3	35.3	69.8
	자금조달	금월 평가	61.8	73.3	51.6	65.5	41.2	62.5
		차월 전망	61.8	77.0	45.2	67.8	38.2	65.6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37.8	63.6	37.1	38.0	32.4	43.8
		차월 전망	46.4	72.7	45.2	46.8	41.2	50.0
	인력수급	금월 평가	55.4	81.8	56.5	55.0	58.8	60.4
		차월 전망	57.9	82.4	54.8	59.1	58.8	63.5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15.0	58.2	12.9	15.8	8.8	17.7
		차월 전망	21.0	60.0	17.7	22.2	14.7	22.9
	자재수급	금월 평가	47.6	89.7	50.0	46.8	35.3	55.2
		차월 전망	51.1	89.7	50.0	51.5	44.1	56.3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38.2	69.5	45.2	35.7	44.1	43.8
		차월 전망	44.6	64.1	43.5	45.0	41.2	50.0
	장비수급	금월 평가	76.0	100.6	80.6	74.3	70.6	86.5
		차월 전망	71.7	99.4	75.8	70.2	73.5	80.2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